다운로드 믿음과 스트리밍 믿음

(시편 1:1~6)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다운로드 믿음과 스트리밍 믿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다운로드 믿음과 스트리밍 믿음'
다운로드(download)는 내려 받아서 저장하는 것이고, 스트리밍(streaming)은 '흐름'이라는 뜻대로 실시간 전송을 말합니다.
요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려서 전국적으로 가뭄 사정이 많이 해갈이 되었습니다. 제가 달동네에 살 때에는 항상 물이 문제였습니다. 제한급수를 하게 되면 언덕 아래까지 내려가서 지게로 물을 날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물탱크 트럭이 와서 물을 공급해줄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을 받아 물 항아리에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썼습니다. 요즘은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에 물을 저장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경우의 차이는 흐름에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지금 저수지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수도파이프를 통해서 집까지 물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을 받아놓고 쓰는 경우에는 흐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방안에서도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영화를 서비스하는 사이트로부터 영화파일을 직접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안으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물을 물 항아리에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내가 보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

면 따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지 않아도 바로 서버로부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나는 일은 많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거나 자녀들이 일류대학이나 일류직장에 들어가든지 일등 배우자를 만날 때에 승진할 때에 돈을 많이 벌 때에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신바람 나야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신바람이 나서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믿기는 믿지만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목회에 짓눌려서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운로드 믿음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원래 스트리밍 믿음이어야 합니다. 흐름이 항상 유지되지 않는 다운로드 믿음은 내 머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은 믿음입니다. 설교, 성경공부, 구역모임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두고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정보를 꺼내서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속에 기억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나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정보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신바람이 나지 않는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것뿐인데 이 상태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달동네에서 물 항아리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 것처럼 흐름이 끊어져서 신바람이 나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되었고, 또한 이 잘못된 태도가 그대로 용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 있는'이라는 뜻이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똑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삼각관계를 염두에 둘 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고 그리고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몸도 있고(내 마음에 대해서는 몸도 이 세상에 있는 것임) 가족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 등이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가야 될 똑바른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이 길을 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죄인은 세상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으로 가는 길을 결정하는 기준은 마음의 공백입니다. 이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쪽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돈을 벌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갈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마음이 돈에 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죄인은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 행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찾아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멸망당할 죄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기가 힘든 것일까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흐름을 형성하면서 뜻이 주어지고 의도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의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유는 이 세상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육체의 눈과 귀로 보거나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본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문자적 내용을 따라 행동하라고 주신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율법대로 행하라'는 말과 '율법을 묵상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은 마치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애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애인이 보고 싶을 때마다 편지를 꺼내어 읽어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미국에 있는 애인에게로 내 마음을 옮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게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해봅니다.

재물은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증거로서 율법을 주셨고 또한 그 율법과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과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곧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대한 작전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전쟁이라는 세상의 과제와 하나님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렬하게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증거로서 붙잡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스트리밍으로 유지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로 바꾸게 되었는지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율법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에 마음을 두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흐름으로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애굽에서의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뒤에 율법을 주야로 기억하여 마음의 흐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흐름을 유지하도록 율법과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흐름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흐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운로드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분에게는 사업을 해서 흑자를 얻기 위한 마음이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과 돈에 대해 지속적인 흐름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은 두 가지 대상을 향하여 동시에 흐름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에 부르는 하나님은 내 기억장치에 다운로드 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스트리밍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스트리밍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 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을 꺼내어 믿음으로 생각하고 자녀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과 정보가 아무리 많고 해박할지라도 그것은 실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트리밍 믿음은 여호수아처럼 나와 전쟁과 하나님의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심의

증거물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흐름을 유지할 때에 내 몸이 있는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 몸은 수도꼭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흐르게 합니다. 마음의 수도꼭지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은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늘의 뜻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와 하나님과 삼각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서 자녀에게 자꾸만 끌려가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승천의 길을 연결합니다. 죽은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시냇가에 뿌리를 둔 나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속적으로 흘러서 하늘에 연결될 때에, 우리 마음은 또한 뿌리가 되어서 하늘의 기운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역흐름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된 엄마는 자녀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수도꼭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웃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이웃사랑은 곧 이웃들 앞에서 실시간 하나님의 수도꼭지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박애정신을 가지고 NGO에 소속해서 국제봉사활동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마피아가 마음의 비움을 채우고자 못된 짓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울지라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갖는 것은 아니기에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이웃사랑도 죄입니다. 이웃사랑이야말로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져야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의 흐름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에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돈이나 자녀 성공 등을 향해 흐르면서 하나님을 다운로드 된 기억과 정보로서 활성화시키려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즐거울 수가 없고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때를 따라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과 스트리밍으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적절한 열매를 맺게 되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좇아갈 수 있도록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는 일에 소홀함으로서 하늘을 향한 마음의 흐름을 만들지 못할 때에, 믿음은 살아있는 스트리밍 믿음이 아닌 죽은 다운로드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

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밝히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하나님과의 스트리밍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길을 따라 하늘기운이 내려오면서 내 몸은 가는 곳마다 하늘기운을 흐르게 하는 수도꼭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삼각관계에서 십자가를 먼저 바라봄으로 하늘을 향한 내 마음의 스트리밍이 형성되게 하시고, 그것을 길로 삼아서 하늘로부터 땅으로의 스트리밍이 실시간으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